

# “이용료 인상?” 광주도시공사 골프연습장 이용자들 ‘반발’

### 영업이익 불구 상무·빛고을골프연습장 3월 1일부터 이용료 인상 반면 광주시 체육시설 ‘염주골프연습장’ 이용료는 그대로 유지해

광주도시공사가 운영 중인 골프연습장 2곳이 오는 3월 이용료를 인상한다. 해당 연습장 이용자들은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또 인상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8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현재 상무·빛고을·염주 등 3곳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중 상무골프연습장과 빛고을골프연습장 2곳이 오는 3월 1일부터 이용료를 인상한다. 이용 형태 별 최소 2000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오른다. 반면 염주골프연습장은

이용료를 인상하지 않는다.

매년 흑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무골프연습장과 빛고을골프연습장은 도시공사 자체시설이다. 도시공사가 내부 검토·판단 뒤 이용료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광주시 체육시설인 염주골프연습장은 조례를 근거로 이용료를 산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이용료를 변동할 수 없다. 이 같은 이유로 2곳의 골프연습장만 이용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도시공사는 상무골프연습장과 빛고을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을 적자시설

인 염주골프연습장과 빙상장·수영장에 사용하고 있다. 결국 두 곳의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만 늘어나는 셈이다. 도시공사는 2018년에도 이용료를 대폭 인상. 이용자들의 반발을 샀다.

지하 1층·지상 2층·폭 135m·직선 길이 200m 규모의 상무골프연습장은 동시에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광주 도심 최대 규모의 골프연습장이다. 1996년 문을 연 상무골프연습장의 일일 평균 이용 인원은 1000명 안팎이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에만 102만5624명이 연습장을 이용했

다.

남구 노대동에 자리한 빛고을골프연습장은 총 75타석, 비거리 180m 규모다. 바로 옆 빛고을컨트리클럽과 함께 2010년 개장했다. 지난 3년 동안 111만4610명(골프장 포함)이 이용했다.

1997년 개장한 염주골프연습장은 부지면적 1만669㎡·건물면적 1571㎡ 규모로 52타석을 갖추고 있다. 비거리는 145m·폭은 75m이다. 2019년부터 3년간 67만8097명이 찾았다.

인상 소식을 접한 상무골프연습장 회원인 A(50)씨는 “흑자를 냈으면 이용료를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것이 상식 아니냐”며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또 “인상 때마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이 같은 서비스를 받아본 기억이 없

다”고 덧붙였다.

상무골프연습장을 9년째 이용하고 있다는 B(48)씨는 “접근성이 뛰어나 이 곳을 이용하고 있다. 몇년 전에도 일방적 인상을 결정하더니 올해도 마찬가지”라며 “상무골프연습장 이용자들이 다른 시설의 적자를 메워주고 있는 셈이다. 누구를 위한 도시공사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계속되는 물가 상승과 대외적 요인으로 4년 6개월 만에 불가피하게 이용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며 “지난해 각 시설 개보수 공사에 48억 원이 소용됐다. 인상 금액은 민간시설 이용료의 80%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강조했다.

최이슬기자



**3년 만에 열린 화천산천어축제** 휴일인 8일 오후 낚시객들이 2023 화천산천어축제가 열리고 있는 강원도 화천군 화천천 얼음낚시터에서 산천어를 낚고 있다. 산천어축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3년 만에 열렸다. 지난 7일 개막한 축제는 오는 29일까지 이어진다.

## 휴정기 끝 숨가쁜 법원...오는 12일 이재명 손배소 1심 결론

### 법원 동계 휴정기 마무리...재판 재개

전국 법원이 2주간의 동계 휴정기를 마치고 재판을 재개한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번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데이트폭력 발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을 비롯해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법원은 지난날 26일부터 실시한 동계 휴정기를 지난 6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오는 12일 이 대표의 ‘데이트폭력 발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회신한 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혼 배우자의 선고가 예정되었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교체하던 여자친구가 헤어지고 하자 집을 찾아가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 총 37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김씨의 변호를 맡게 된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에 피해자 유족 등은 “이 대표가 일가족 살인 사건에 대해 ‘데이트폭력’이라고 해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날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회신한

후 버린 혐의로 기소된 사실혼 배우자 A씨의 선고공판도 예정되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유 전 본부장이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미리 맡겨둔 휴대전화를 유 전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형사사건의 핵심 증거를 인멸한 사건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사건 당시) 경황이 없었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화천대우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로 한동안 멈췄던 ‘대장동 재판’도 오는 13일부터 매주 월요일, 금요일 두 차례 진행된다. 이에 따라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재판에 속도가 더욱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오는 2월 예정된 법원 인사 전에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이후에도 계속 재판이 진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보다 앞선 11일 서울고법에서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씨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의 항소심 선고와, 오는 13일 이른바 ‘빙상 왕따 논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었다.

김씨와 주 전 기사는 지난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께 8차례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당시 민주당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 등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 및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2명은 재판 과정에서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1심은 “언론인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활용해 불법적 상대방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현재 결정에 따라 검찰이 공소를 취소한 3차례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같은 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폭언과 괴롭힘으로 ‘왕따 논란’에 휩싸인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씨와 노선영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는 조정기일이 열릴 전망이다.

두 사람은 올림픽 당시 팀 주월 경기 4강 진출 탈락 직후 이뤄진 인터뷰 등이 노씨의 부진 배경에 김씨의 따돌림이 있었다는 ‘왕따 논란’으로 비화됐는데, 김씨는 노씨가 허위 주장을 했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노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앞선 변론기일에서 두 사람에게 강력하게 화해를 권고한 바 있다. 이날 조정이 성사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지만 결렬될 경우에는 13일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오는 12일 만취 상태에서 직원을 막대로 찢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센터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1심에서는 징역 25년이 선고된 바 있다.

최이슬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털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